

保健系列學科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黃 仁 慶

(仁濟大 保健學科)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보건학이라는 학문이 전문교육 기관에 의해 연구, 교수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4년제 대학과정에서 보건학의 교육을 위한 학과가 개설된 것은 79년 연세대 원주분교의 의과대학 내에 보건학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이고 그후 국내의 많은 대학이 보건대학 내지 보건관련학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대학 수준에서는 이보다 앞서 63년에 2년과정의 수도의과대학병설 의료기술초급대학이 설립되어 의료기사의 양성과 관련된 보건학이 강의되기 시작하였고, 79년부터는 전문대학의 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가 삽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년 또는 3년과정의 보건관련 전문대학이 다수 설립, 운영되고 있다.

4년제 대학과정에 보건학과 내지 유사 명칭의 보건관련학과가 설치되어 보건학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된 기간은 따라서 국내의 경우 15년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기반이 확충·성장된 기간이며, 특히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각종 의료시설의 공급이 확대된 기간이다. 보건학에 관한 교육이 대학원과 전문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4년제의 보건대학과 보건계열학과의 설립으로 정상적인 학제간 체계를 형성하고 학과 개설이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와 같이 의료제도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의료지원 및 일반사무 담당인력의 공급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는 현재 여러 가지의 독특한 특성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과제는 전술한 바, 학과의 성립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들 학과의 운영적 특성을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과의 설치현황과 특성,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진로와 여건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設置現況 및 特性

4년제 대학에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3년도 현재 26개의 보건계열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학과는 보건대학, 보건과 학대학, 재활과학대학과 같이 보건계열로 독립

된 단과대학의 소속으로 있거나, 기존의 자연과학계열 또는 사회과학계열의 대학이나 학부에 속해 있다. 또한 소수의 몇 개 학과는 의과대학과 체육대학에 속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표를 들여다 보면 독자들은 아마 본고에서 왜 “보건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26개 학과를 계열별로 분류하고 동일명칭의 학과수를 나타낸 것인데, 결국 이들 학과는 3개

<표 1> 보건계열학과 설치현황(1993)

학 교	소속대학·학부	학 과 명	중점분야 ¹⁾
건국대	의과대학	의학공학과	
경산대	자연학부	보건경제학과 환경보건학과	병원관리· 의무기록
계명대	자연과학대학	공중보건학과	환경보건· 임상병리
고려대	자연과학대학	의용전자공학과	
고신대	자연과학부	보건학과	보건행정· 환경보건
대구대	제철과학대학 ²⁾	언어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심리요법학과	
동덕여대	자연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보건행정
삼육대	이학부	재활치료학과	
순천향대	자연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환경과학과 산업보건학과 임상병리학과 재활학과 의용전자공학과	환경보건
용인대	이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원광대	사회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이화여대	체육대학	건강교육학과	보건교육
인제대	보건대학	보건학과 산업보건학과 의용공학과	보건행정 의무기록
	인문사회과학 대학	보건행정학과	
효성여대	자연대학	환경보건학과	

- 1) 학과명칭과 중점분야가 거의 일치하는 학과는 표시를 생략하고 그렇지 아니한 학과에 대해서만 중점분야를 표시하였음.
- 2) 대구대 제철과학대학에는 표기된 3개학과 외에 직업재활학과도 설치되어 있으나, 교과목의 편성이 사회재활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보건계열학과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음. 한신대의 제철학과도 동일한 이유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

<표 2> 보건계열학과의 계열별 현황(199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과명칭)	학과수	
보건관리 계열	보건행정 계열	보건학과 ¹⁾	2	
		보건행정학과	3	
		보건경제학과 건강관리학과 (소계)	1 1 (7)	
	보건교육 계열 (계)	건강교육학과 (소계)	1 (1) (8)	
		환경보건 계열	환경보건학과	4
			환경과학과 공중보건학과 ²⁾ (소계)	1 1 (6)
산업환경 보건계열 (계)	2 (2) (8)			
의료기술 계열	임상진료 계열	임상병리학과	1	
		재활학과	1	
		재활치료학과	1	
		물리치료학과	1	
		언어치료학과	1	
	의공기술 계열 (계)	심리요법학과 (소계)	1 (6)	
		의공기술 계열	1	
		의학공학과 ³⁾	1	
		의용공학과 (소계)	2 (4)	
		(계)	(10)	
합 계	6계열	18종별	26개학과	

- 1) 고신대의 보건학과는 보건행정전공과 환경보건전공으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행정계열로 분류하였음.
- 2) 계명대의 공중보건학과는 환경보건학과 임상병리학과 중점을 두고 있으나, 환경보건계열로 분류하였음.
- 3) 건국대의 의학공학과는 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은 4년이며 의용공학기사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음.

대분류, 6개 중분류, 18개 소분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보건계열의 학과는 크게 보건관리계열, 환경보건계열, 의료기술계열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열은 다시 각각 2개씩의 중분류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중분류 속에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거나 교과목 구성에 큰

차이가 없는 하나 내지 네 개의 학과들이 속해 있다.

보건계열학과들의 이러한 계열구성과 명칭의 다양성,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유사성은 보건학의 학문적 내용의 포괄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과운영의 여러 가지 특성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표 1>과 <표 2>의 현황, 그리고 이들 학과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찰해 볼 때 보건계열학과들은 다음과 같은 학과설치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보건계열의 학과들은 설치 면에서 독립된 單科大學으로서의 계열영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세대의 보건계열학과는 당초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86년에 독립된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인제대의 보건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다가 91년에 보건대학이 설립되면서 여기에 소속하게 되었다. 대구대의 재활과학대학은 의료기술계열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88년에 의료기술계의 단과대학으로 종합대학교 내에 설치되었다.

둘째, 4년제 대학은 기존의 보건관리계열 및 환경보건계열의 학과 외에 의료기술분야의 학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술한 바 있는 대구대의 재활과학대학 설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는 보건과학대학 내에 임상병리학과를 설치하였으며 연세대, 인제대, 고려대, 건국대 등은 보건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또는 의과대학 내에 의공기술계의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전문적 조직의 속성상 독립된 보건계열대학의 설치와 이들 대학 내에서의 의료기술계열학과의 설치경향은 점차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많은 4년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보건관리계열 및 환경보건계열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보건계열 분야에서는 보건경제학과, 산업보건학과 등의 설치와 같은 수평적 분화 내지 특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학과를 설치하는 각 대학의 내부 사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전문적인 보건관련인력의 수요가 증가

하고 이의 충족을 위하여 대학들이 적극적 자세로 인력의 양성, 공급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에서의 보건계열학과의 설치확대, 그리고 독립된 계열로서의 단과대학의 설치의 종래의 보건학을 保健科學으로 확대인식하는 새로운 경향을 낳고 있다. 연세대가 보건과학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인제대가 국문으로는 보건대학이라 칭하면서도 영문으로는 College of Health Science로 표시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의료기술계열학과의 확대설치와 산업보건학과와 같은 분과화의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종래 공중보건학이라 부르던 좁은 의미의 보건학이라는 개념 대신에 보건과학이라는 넓은 의미의 보건학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건과학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배경 외에도 기존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해서 보건학이 독립적이고 대등한 과학영역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건과학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 정의하는 것은 이를 너무 임의적으로 또는 단순화하여 본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학, 약학 등의 학문도 보건과학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민보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과학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분야에 대응되는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과학분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며, 보건계열학과 설치의 측면에서는 보건관련학과의 범위를 더욱 확대, 포괄하려는 학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敎科目的 편성과 운영

예외가 있긴 하겠으나 대학의 교과목 편성은 대체로 각 대학과 학과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교수진들의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학생들의 졸업후 취업진로라 하겠다. 학생들의 취업률은 국가·사회 내에서의 특

정 대학이 평가받는 질적 수준, 면허·자격제도의 존재와 그 인력소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교수들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다른 측면의 요소는 교수들이 자기의 학문분야에 대해 가지는 인식 또는 기대와 관련된 요소로서 각 교수의 교육배경이나 타대학 또는 타학과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방식이 이러한 기대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보건계열학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로 동등한 명칭을 갖는 학과들의 교과목 편성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특정 교과목의 포함여부, 그리고 필수·선택·교양과목으로의 구분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건관리계열의 학과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과목의 편성내용을 조사,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학과수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점유하는 보건관리계열 중의 보건행정계열 7개 학과와 환경보건계열 중의 자연환경보건계열 6개 학과를 대상으로 다빈도 개설교과목을 조사하였다. 다빈도의 기준은 각 계열에 속하는 학과들 중 50% 이상의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하고, 역시 전공기초 및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설정구분도 과반수 이상 학과들이 어느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교과목의 구성내용과 타관련자료를 기초로 볼 때 보건계열학과의 교과목편성과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일부 대학교의 교과목 편성, 운영에서 학과 명칭과 교과목의 편성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보건관리계열의 경우 학과명칭은 보건학, 보건행정학이면서 실제 개설교과목은 의무기록관리와 병원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명칭은 공중보건학과이면서 내부전공으로 의료기술계열에 속하는 임상병리전공과목을 편성하고 있거나, 명칭은 건강관리학과이면서 교과목은 보건관리계열과 환경보건계열의 과목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명칭만 보아서는 학과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명칭이 보건경제학과인데도 의무

<표 3> 보건계열학과의 다빈도 개설교과목(1993)]

구 분	보건관리계열 ¹⁾	환경보건계열 ²⁾
전공기초 및 필수과목 ³⁾	보건학개론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 보건통계학 역 학 병원관리학 의료보험학 전 산 학	보건학개론 환경위생학 산업보건학 수질오염학 대기오염학 수질분석학 대기분석학 환경 공 학 환경관련법규
선택 과목 ³⁾	보건교육학 보건의료정보론 인구보건학 정신보건학 보건의료제도론 보건의료법규 병원회계학 환경보건학 보건조사방법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의학용어 질병분류 의무기록관리 의무기록실습 병원관리실습	생태학 역학·전염병관리 보건통계학 환경행위학 식품위생학 폐수처리학 상하수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독물학 환경계획·관리 폐기물처리 환경기상학 토양오염 해양오염 산업안전 작업환경관리·측정 환경보건세미나

- 1) 보건행정계열에 속하는 7개 학과 중 4개 학과 이상의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임.
- 2) 자연환경보건계열에 속하는 6개 학과 중 3개 학과 이상의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임.
- 3) 각 대학마다 전공기초, 필수 및 선택과목의 구분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과반수의 학과가 채택하고 있는 구분에 따라 필수, 선택과목으로 분류하였음.

기록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다수 편성하고 있거나, 명칭은 보건행정학과이면서도 보건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과목의 구성비율이 36% 정도에 불과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 등이 그 예에 속한다.

둘째, 보건행정 및 환경보건 관련과목을 교과목으로 포괄하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보건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하리라고 판단되는 필수적 성격의 교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과목들로는 지역사회보건, 모자보건, 성인병관리,

전염병관리, 보건영양 등을 들 수 있는 바, <표 3>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들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건계열학과들의 교과목이 학생들의 취업 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되고 또한 교수들이 학과명칭을 교육내용에 맞게 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 명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들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전에 상상 또는 기대했던 것과 입학후의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 혼란과 방황, 그리고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학생들과의 직접적 면담이나 설문에 의한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둘째, 교수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전공분야 또는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보다는 취업중심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석·박사과정에서 연구한 분야와는 현저히 다른 학문분야를 연구하게 되고, 그 결과 심리적 갈등과 학문적 불만족이 야기되며 보건학의 균등한 분야별 학문발전 전에 지장이 초래된다. 국내의 보건계열학과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교수 1인당 강의담당 교과목수가 매학기마다 4~5개 과목에 이르고 있으므로 교수들이 싫더라도 자기의 전공분야 이외의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있다. 특히 보건관리계열학과들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과들이 취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의무기록사 또는 병원이나 의료보험조합 등의 사무직으로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한 편이다.

4. 進路와 興件

보건학의 개념을 넓은 의미의 보건과학으로 이해하고 보건과학을 국민보건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반 분야 학문체계의 총칭이라고 정의한다면 국내의 4년제 대학 보건계열학과가 연구, 교수하는 학문은 결국 의료법상의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을 양성하는 의학, 간호학 등의 학문과 약사인력을 양성하는 약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학

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보건계열학과가 양성하는 인력은 비의료·의약인력이라는 말이 된다. 이들이 취업하는 직종과 자격증, 취업기관 등을 열거하면 <표 4>와 같다.

우선 이들 분야 졸업생의 취업여건을 계열별로 보면 의료기술계열은 남녀를 불문하고 큰 애로가 없는 편이다. 환경보건계열의 경우에도 성별구성에서 남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역시 취업에 큰 애로가 없으며 장래의 취업여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관리계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현재나 장래의 취업여건이 별로 좋지 아니한 실정에 있다. 보건관리계열의 취업여건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직 공무원으로의 취업은 현재까지 대부분 공채방식에 의해 9급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1, 2차 필수시험과목에 생물, 화학, 환경위생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건행정계열학과 졸업생에게는 불리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행정직렬 내에 보건행정직류의 직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건행정계열학과 졸업생의 공무원 취업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하여 실제 취업에 제약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둘째, 각급 병원, 의료보험조합 및 그 관련단체에서 채용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임용시험과목이 보건관리계열학과 졸업생에게 유리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은 사무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면에서 보건계열보다는 일반사회과학계열학과 졸업생의 전문성을 보다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사회과학계열에 속하는 행정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등의 졸업생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수들이 얼마나 취업활동을 많이 하고 이들 기관과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느냐 하는 점이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을 선호하고 있어 여학생들의 취업이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 의무기록사는 대부분 여학생이 희망하는 직종인데 다행히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병

〈표 4〉 보건계열학과 졸업생의 취업직종 및 기관

구 분	직종 또는 자격증	취업기관	비 고
보건관리계열	보건직 공무원 사 무 직	경부기관(시·도·보건소 등) 의료기관 의료보험조합 및 관련단체 각종 의료관련단체	병·의원
	의 무 기 록 사	의료기관 보건소	
환경보건계열	교련교사	여자고등학교	건강교육학과 출신
	보건직·환경직공무원	경부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결역소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
	위생사 1, 2 급 위생시험사 1, 2 급 산업위생관리기사 1, 2 급	식품·철거물업체 음료수생산업체 일반 산업체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근로자 50인 이상
	산업안전기사 1, 2 급 환경기사 1, 2 급	일반 산업체 일반 산업체 환경장비제조업체	근로자 50인 이상
의료기술계열	보건직 공무원 각종 의료기사 의공기사	경부기관(시·도보건소 등)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장비생산 및 판매업체	각종 자격증 소지자

원이 계속 신축되고 병상공급도 확충되고 있는 데다 4년제 졸업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의 취업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병원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측면과 기존 전문대출신 의무기록사와의 갈등요인도 고려하여 4년제 대학 졸업생을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의무기록사의 인력소요는 병상공급이 확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병원의 업무전산화가 추진될수록, 그리고 특히 전산 오더링시스템(ordering system)이 보편화되는 시점에 아르게 되면 인력소요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주시하면서 교과목편성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를 양성, 배출하는 학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화여대의 건강교육학과에 국한되고 있는데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거의 10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보건에 있어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중등교육기

관의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은 약물중독, 흡연, 음주, 사고 등의 불건강행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관리계열내 보건교육계열학과의 개설, 그리고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이들 학과의 졸업생을 보건교육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생활관습 및 개인적 형태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 졸업생들은 취업 진로나 여건의 측면에서 보건관리, 환경보건 및 의료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분야의 전문대 졸업생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보건인력과 교육투자자원을 다같이 낭비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종의 보건인력간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관리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전문술한 바와 같이 보건행정계열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과학계열학과의 졸업생들과도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 역시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국내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는 비의료·의약인력으로서 보건관리, 환경보건, 의료기술 분야의 보건인력을 양성,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설치역사가 가장 오래된 이화여대의 건강교육학과는 건강·불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내지 개인적 행태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환경보건계열의 학과들은 인간의 건강·불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는 자연환경과 인조환경(man-made environment) 등의 물리적 환경요인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설치된 학과들이다. 보건관리계열 중의 보건행정계열학과들은 보건행정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건정책, 제도, 사업, 조직 등에 대한 행정관리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 보건학의 영역에 의료기술계열의 학과가 신설 또는 도입됨으로 인하여 보건학의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건학적 접근방식에서 출발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보건계열학과들은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는 현실적 애로 때문에 교과목을 취업중심으로 편성, 운영하는 왜곡된 현상을 낳고 있다. 즉, 보건관리계열 중의 보건행정계열 학과들은 명칭을 보건학과, 보건행정학과, 보건경제학과 등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제 교육과정은 의

무기록사, 병원사무직, 의료보험조합사무직 등 의료 및 관련업무의 담당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본질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보건제도가 아직 공중보건 내지 1차보건의료를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2, 3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태의연한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건강교육학과, 의용공학과 등 일부 학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들은 졸업생들의 취업면에서 전문대학의 학과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배출인력은 사회에서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바, 이는 4년제 대학들이 차별화되고 보다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반 문제들이 보건계열학과 및 그 소속교수들의 잘못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학과 교수들은 당초의 학과설치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보건관리계열의 교수들은 졸업생들이 의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도 보건행정관리분야와 보건교육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4년제 보건계열학과들은 그 졸업생들이 전문대의 졸업생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과 질적 수준을 설정, 유지해야 한다. 장래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4년제 보건계열학과들은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립가치도 크게 손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